

R&D 아웃소싱 사례 - GL팜텍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및 제제개발 전문업체인 지엘팜텍(주)는 2002년 8월에 설립된, 이제 18개월을 지난 신생 벤처기업이지만 R&D 아웃소싱 서비스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자체 보유한 난용성 약물의 가용화 기술과 오랄 조절 방출형 전달시스템을 바탕으로 신공제약, 국제약품, 태평양제약 등 주요 12개 제약회사와 제너릭 의약품 및 개량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의약품 R&D 전문기업으로서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난용성 약물의 가용화 기술이란 난용성 약물들이 생체 위장관액내에서 잘 녹지 못하는 성질로 인해 체내 흡수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약물 자체의 분자간 상호작용을 차단해 약물이

지엘팜텍사의 강점은 국내 우수 제약회사에서 다년간 약물 전달 및 제제 연구를 담당했던 전문 연구 인력들이 주축 되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충분히 녹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일 1회 투여 가능한 지엘팜텍사의 경구용 조절 방출형 기술은 약물의 특성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된 매트릭스(Matrix) 시스템으로서 약물의 생체내 방출속도를 조절하여 약효를 증대시키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유망한 기술 분야이다.

지엘팜텍사의 R&D 서비스는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제제화 연구뿐만 아니라 생산용 스케일업 작업 및 다른 생동성시험업체와 연계한 제너릭 제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포함하는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계약업체들은 즉시 허가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생산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효율성이 높아지고 제품 런칭시점이 빨라짐에 따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엘팜텍사는 R&D 아웃소싱 사업을 통해 단기자금을 확보하고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2003년에는 19억원의 매출을 창출하였으며 올해에는 연구원 보강 및 기술축적 등으로 40억원의 매출이 달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엘팜텍사의 강점은 국내 우수 제약회사에서 다년간 약물 전달 및 제제 연구를 담당했던 전문 연구 인력들이 주축 되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상당수의 제너릭 의약품을 국내 시장에 진출시킨 경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성공적인 개량신약 개발을 통해 해외 업체로의 기술 수출을 도모한, 이미 실력을 인정 받은 연구 인력들이다.

이들은 다양하게 축적된 제제학적인 노하우뿐만 아니라 상품화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의 안정성 및 스케일업 또는 생산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탁월함을 보여 주고 있다는 평이다.

의약 분업 이후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제품력의 중요성이 극명해지면서 신약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너릭 또는 개량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많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지엘팜텍(주)와 같은 R&D 전문 업체를 통한 아웃소싱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제공 : GL팜텍)

R&D 아웃소싱 계약 실적(2004년 1월기준)

2002 08.01	지엘팜텍(주) 법인 설립
2002 10.09	태평양제약(주) R&D 계약 체결
2002 12.03	국제약품공업(주) R&D 계약 체결
2003 01.23	신공제약(주) R&D 계약 체결
2003 02.10	(주) 대웅제약 R&D 계약 체결
2003 02 21	(주) 한서제약 R&D 계약 체결
2003 04.07	(주) 동광제약 R&D 계약 체결
2003 05.14	(주) 하원제약 R&D 계약 체결
2003 09.05	대화제약(주)와 R&D 계약 체결
2003 10.20	(주) 에이치팜과 R&D 계약 체결
2003 10.21	근화제약(주)와 R&D 계약 체결
2004 01.13	이연제약(주)와 R&D 계약 체결
2004 01.30	중외제약(주)와 R&D 계약 체결 예정